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아바텍(149950)

##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광섭 책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 아바텍(149950)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지닌 디스플레이용 부품 전문기업

##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박명섭
설립일자	2000년 09월 01일
상장일자	2012년 11월 0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ITO코팅, 진공박막코팅 외

## 시세정보(2021/02/08 기준)

현재가(원)	17,3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708
발행주식수	15,607,500
52주 최고가(원)	16,000
52주 최저가(원)	4,500
외국인지분율	1.68%
주요주주	위재곤 엘지디스플레이

## ■ 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 제조업체

아바텍은 디스플레이용 진공박막코팅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 2012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글라스 슬리밍(Glass slimming)과 ITO코팅,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백색가전의 외장용 표면처리 등의 사업이 주력이다. 아바코, 대명ENG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 내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바텍은 국가기간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검증된 기술력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기기의 슬림화, 박형화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화학적 식각을 통한 글라스 슬리밍 기술을 고도화하였으며, 슬리밍 이후 패널의 정전기 제거를 위한 ITO코팅 공정을 일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기업에 지속적인 납품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등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 MLCC 사업 투자 확대에 기반한 외형 성장 기대

아바텍은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선정하고, 2019년 월 30억 개 규모의 양산 설비(구미 MLCC 공장)를 구축하기 위해 450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제품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며, 총 누적 생산규모를 월 30억 개에서 월 200억 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MLCC는 전기자동차 및 5G 분야에서 소형 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동사는 대규모 첨단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외형을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956.3	21.3	158.9	16.6	144.4	15.1	11.2	10.3	9.2	962	8,811	8.1	0.9
2018 (개별)	743.3	(22.3)	55.7	7.5	77.3	10.4	5.6	5.2	6.6	510	9,240	10.8	0.6
2019	754.1	1.5	54.3	7.2	72.4	9.6	5.3	5.0	6.4	499	9,696	15.4	0.8



## 기업경쟁력

### 디스플레이 부품 분야 검증된 기술력

- 디스플레이용 핵심공정 기술
  -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메탈코팅 기술 등 보유
- 풍부한 개발 경험 및 통합 생산시스템
  - 글라스 슬리밍용 식각액/세정제 등 자체 개발
  - 글라스 슬리밍 공정과 ITO코팅 공정 일원화

### 지속 성장 가능성

- 식각/ITO코팅사업의 견고한 매출 시현
- 대기업 위주의 안정적인 고객 확보
- MLCC 양산을 통한 외형 성장 기대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 슬리밍 식각 기술
- 정전기 제거를 위한 ITO코팅 기술
- 백색가전 제품의 표면처리 기술
- 강화 유리 제조 기술

### 주요 사업 영역



## 시장경쟁력

### 주요 기업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MLCC
솔브레인, 아바텍, 캠트로닉스, 노바테크	네패스, 아바텍, 월드비전, 유아이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 글로벌 양산능력 보유

- 전 공정 자동화/일원화를 통한 글로벌 양산능력



## 최근 변동사항

### MLCC 양산설비 구축

- MLCC사업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
  - 전장부품 인증(AEC-Q200) 획득
  -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IATF16949) 인증

### 특허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특허 출원/등록
  -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제조방법(2020 등록)

# I. 기업현황

##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선도기업, 아바텍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주로 디스플레이의 경량 박형화를 위한 글라스 슬리밍 및 ITO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통해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 개요

아바텍(이하 ‘동사’)은 2000년 설립되어, 201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국내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국내외 유수의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020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85길 100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5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아바텍	대표이사	박명섭
상장일	2012년 11월 06일	임직원 수	533 명 (2020년 09월 기준)
자본금	8,153백만 원	계열회사	아바코, AVACO Inc, DAS, 대명FA AVACO Machinery, 대명ENG
발행주식 총수	15,607,500주 (2020년 9월 기준)		

\*출처: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위재곤으로 18.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경영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위재곤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엘지디스플레이와 박창환으로 각각 12.81%, 5.61%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계열회사는 아바코, AVACO Inc., AVACO Machinery, 다스, 대명ENG, 대명FA 등이 있으며, 주요 주주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계열회사 구성

계열회사	사업목적
아바코	제조
AVACO Inc.	판매대행
DAS	제조
대명FA	제조/유통
AVACO Machinery	판매대행
대명ENG	제조

\*출처: 3분기보고서(2020)

표 3.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위재곤	18.45
엘지디스플레이	12.81
박창환	5.61
위지명	5.00
아바코	4.23
기타	53.9
합계	100.00

\*출처: 3분기보고서(2020)

## ■ 대표이사 정보

박명섭 대표이사는 경영총괄 담당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해 경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높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박명섭 대표이사는 경북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LG Philips에서 디스플레이 개발을 시작으로 동사에서 공장장을 역임하며, 현재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 중이다.

## ■ 주요 기술 역량

동사는 2001년 모니터용 ARAS(무반사 정전기방지) 코팅유리 양산을 시작으로, 2004년 Projection TV용 고반사 코팅유리, 2007년 휴대폰 Window용 사출물 증착, 도장제품 양산, 2013년 터치패널용 인텍스 매칭 ITO코팅 글라스를 양산하여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창업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및 코팅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선도기업으로 시장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1년 9월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필름코팅, 가전표면처리, 글라스 슬리밍, ITO 코팅, MLCC로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Plasma 밀도 측정 및 진단 방법개발, 박막공정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기술 개발, 평판표시장치 무반사/무정전 코팅기술, 인텍스 매칭 ITO 글라스 개발, 글라스 슬리밍 기술 개발 등이 있다.

그림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출처: 3분기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2. 주요 연구실적

연구실적	Plasma 밀도 측정 및 진단	박막공정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기술 개발	평판표시장치 무반사/무정전 코팅기술
모니터 제작용 Mask Blank	Decoration용 Color Coating	인텍스 매칭 ITO 글라스	글라스 슬리밍 기술개발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주요 사업영역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진공박막코팅 제품의 제조업체로 설립된 이래, 디스플레이의 변천사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진공박막코팅 기술을 축적하였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었다. 현재 영위하는 주요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경량 박형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위한 식각/ITO코팅사업, 가전제품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등이 포함된 코팅사업,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의 표면을 보호하는 강화유리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MLCC사업이 있다.

그림 3. 주요 사업영역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매출 비중

2020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은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메탈코팅 분야에서 98.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LCC 분야의 경우 아직 그 비중을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4. 2020년 3분기, 매출 비중

품목	매출액 (백만 원)	비율(%)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메탈코팅	55,180	98.53
강화유리	-	-
MLCC	1	0.01 미만
기타 (표면처리 외)	818	1.46
합계	55,999	100.00 %

\*출처: 3분기보고서(2020)



## ■ 특허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특허를 통해 보유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특허를 활용하여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개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타사의 시장 진입에 대한 기술 장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동사는 7개의 국내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에는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제조방법’ (10-2112256, 10-21122579)에 관한 2건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국내 등록 특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0-2112257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제조방법
10-2112256	고유연성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제조방법
10-1818623	알루미늄 산화질화물이 코팅된 투명기판
10-1818625	다 유전체 코팅 투명기판
10-1391078	유리기판 에칭장치
10-1068114	유리기판 에칭장치
10-1068113	유리기판 에칭장치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II. 시장 동향

###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지니는 디스플레이 산업

동사의 주요 사업은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및 메탈코팅으로 TV, 모바일, PC, 웨어러블 기기 등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이다.

#### ■ 디스플레이 산업의 정의 및 특징

동사의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용 패널 글라스의 경량 박형화를 위한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및 메탈코팅으로,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스플레이는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화면표시장치를 지칭하며, 주요 생산업체는 아시아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전후방 파급력이 큰 중간재 산업으로 후방산업인 핵심 제조장비와 소재의 기술력이 패널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TV 등의 전방산업에 디스플레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용 효율화를 위해 큰 비중의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패널업체들의 경쟁적 설비 투자 확대 및 가동률 조정으로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나아가 전자, 재료, 화학, 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최근 IoT, 스마트카 등의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 4.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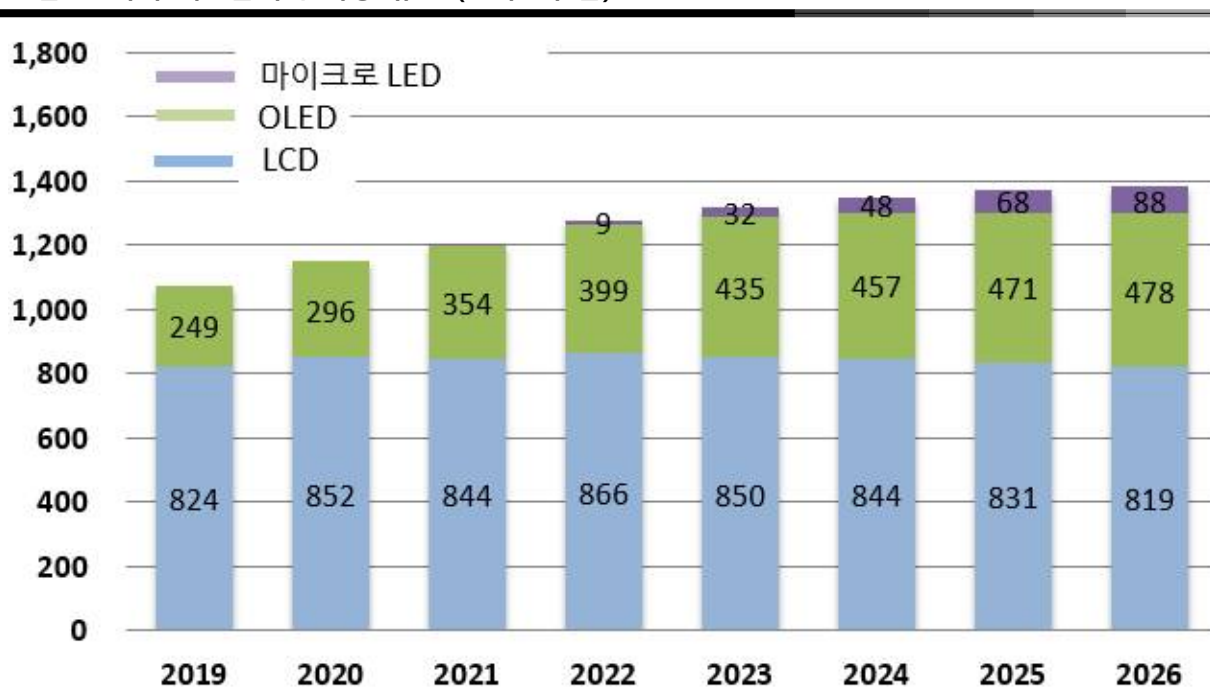
\*출처: KIET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초분석',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국제조사기관인 OMD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70억 달러 수준(LCD 824억 달러, OLED 249억 달러 포함)에서, 2026년 약 1,390억 달러(LCD 819억 달러, OLED 478억 달러, 마이크로 LED 88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 종류에 따라 시장 성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CD 분야는 약 800억 달러 초반대 규모를 유지하며 정체가 예상되며, OLED 분야는 2020년 249억 불에서 2026년 478억 달러 수준으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기물 기반의 자발광소자인 마이크로 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새롭게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단위: 억 불)



\*출처: OMDIA/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국가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15년 15.4%에서 2020년 4.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은 20%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까지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다 2020년 37.3%로 점유율이 하락된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은 이와 반대로 2015년 14.1%에서 2020년에 36.3%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의 LCD 비중 확대 및 이로 인한 가격 경쟁심화로 국내 업체들이 LCD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재편하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도 해당 기술분야를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인바, 향후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선두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가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단위: %)



\*출처: OMDIA/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Ⅲ. 기술분석

### 글라스 슬리밍 및 진공박막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 선도

동사의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터치패널의 성능 보장을 위한 핵심 공정이다.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량 박형화 요구가 커지고, 터치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해당 기술들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동사는 이들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 ■ 경량 박형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위한 글라스 슬리밍/ITO코팅 기술

식각 공정을 통해 패널 글라스를 얇게 만드는 글라스 슬리밍 공정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전 부분에서의 경량 박형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발전 추세와 병행하여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 확대는 글라스 슬리밍의 수요를 견인해왔다. 동사는 화학 식각법을 사용하여 LCD 또는 OLED와 같은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글라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에칭 전 약 1mm의 글라스 두께를 약 0.3mm까지 박형화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ITO코팅은 글라스 슬리밍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진공증착설비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배면에 ITO 도전막을 코팅하는 공정이다. 터치기능을 이용한 제품의 증가에 따른 LCD 구조 및 소재 변경과 함께 대두된 기술로, 특히 IPS(InPlane Switching)방식의 패널에서 필수적인 공정이다. IPS 방식은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에 채택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기술로 넓은 시야각 확보에 유리하나 정전기와 같은 외부의 전기적 자극에 의해 화질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ITO코팅 공정은 글라스 상부 면에 도전막을 형성하여 정전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적 자극에 의한 오동작과 화질의 왜곡을 방지하게 된다.

그림 7.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기술



\*출처: 동사 IR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진공증착시스템을 통한 코팅기술

동사는 주로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 등의 물질을 진공증착시스템을 통하여 유리 또는 수지계(아크릴류)에 증착시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성 박막 코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표면처리 데코 글라스, 로이유리, 기능성 필름 등이 있다.

표면처리 데코 글라스는 동사의 증착기술과 인쇄공정이 접목되어 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의 백색가전 제품의 외관에 사용되고 있다. 표면처리의 목적은 완제품의 표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재료 고유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 외관을 만드는 데에 있다. 과거 기능만을 강조하던 가전제품들이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외적 디자인 고급화 요구, 가전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하는 시장 트렌드 및 제조사들의 제품 차별화 목적 등에 부합하기 위해 해당 시장은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로이유리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도 적외선 영역의 복사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겨울에는 실내의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여름에는 외부로부터의 열기를 차단하여 냉난방비의 절감에 효율적인 제품이다. 동사는 로이유리 제조를 위한 코팅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관련 규제 강화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트렌드와 맞물려 고기능성 유리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사는 해당 제품의 기술적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 스퍼터링 공법 제어기술 및 대면적 양산화 공정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동사는 기능성필름 제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6년 1월 청주시 소재의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으며, IT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용 및 건축용 필름 제품의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층막 스퍼터링과 산화물 금속을 나노 단위의 두께로 제어하여 고부가 박막코팅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베젤 전극용 금속 스퍼터링 필름, AR(Anti-Reflection) 필름, AF(Anti-Fingerprint) 필름, AG(Anti-Glare) 필름, AS(Anti-Static) 필름, 자동차/건축용 IR 차단 필름, FPCB/COF(Chip-on-Film)용 동박필름 등 다양하다.

그림 8. 동사의 코팅기술이 적용된 제품들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화학강화공정과 표면코팅 기술을 접목한 강화유리 제조

강화유리는 PC나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커버 글라스로 주목을 받는 제품으로, 최근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면서 접촉이나 낙하 등의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장부품의 커버 글라스로도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강화유리는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모바일용 커버 글라스의 경우는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를 위해 통상 1mm 이하의 얇은 제품이 요구된다. 동사는 2011년에 강화유리사업에 진출하여 2012년 pilot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 패널의 커버 글라스 양산제품을 꾸준히 생산하며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그림 9. 강화유리 응용분야



\*출처: 동사 홈페이지

## ■ 전 공정 자동화/일원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품질 향상

동사 제품의 가격은 고객사별 각 제품 특성(사이즈,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바, 원재료 가격의 관리 및 생산 운영(설비 가동률/수율)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다만, 원재료 가격에 대한 관리의 경우, 규격, 용량 및 사양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변동 추이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동사는 생산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주요 제품(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표면처리, 강화유리 등)에 대해 각각 고객사가 요청한 제품의 품질 수준 및 납기에 대응하고자 제조 인프라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와 관련하여, 동사는 글라스 슬리밍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라스 슬리밍 공정 이후 ITO코팅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일원화(In-Line)하여 중복 공정을 제거하고 리드 타임을 단축하였다. 또한 필름/글라스 제품을 위한 절단-인쇄-세정-증착-라미네이션 공정의 In-line 생산체계 및 강화유리 제조를 위한 절단-CNC가공-박리-강화-세정-인쇄를 포함하는 전 공정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으로써, 경쟁사 대비 물류시간, 생산성, 수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림 10. 전 공정 자동화/일원화**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 SWOT 분석

그림 11. 동사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 (Strong Point)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전문업체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패널 글라스의 경량 박형화를 위한 글라스 슬리밍, ITO코팅 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부품 분야 전문기업으로, 매출 규모, 연구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국내 선두업체에 해당한다. 또한 다년간의 제품 개발 이력과 우수한 공정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이 우수하여 경쟁사 대비 개발 및 고객지원에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글라스 슬리밍 공정과 ITO코팅 공정의 일원화 및 자동화를 통해 경쟁사 대비 물류시간, 생산성, 수율 등의 측면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Opportunity Point) MLCC 사업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

동사는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신규사업으로 MLCC를 선정하고, 2019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양산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MLCC는 전기자동차 및 5G 분야에서 소형 고용량 제품 위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동사의 양산화가 본격화될 경우,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사는 자동차 품질관리경영시스템(IATF16949)을 인증 받았으며, MLCC 개발제품에 대해 전장부품 인증(AEC-Q200)을 획득하는 등 순조롭게 양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 (Weakness & Threat Point) 부품 업체 간 경쟁 심화,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 구조

동사가 속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최근 COVID-19의 영향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시장 내 안정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이 진출한 MLCC분야에서, 동사는 아직 후발업체로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다수의 부품업체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어, 기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뿐만 아니라, 원천/기반기술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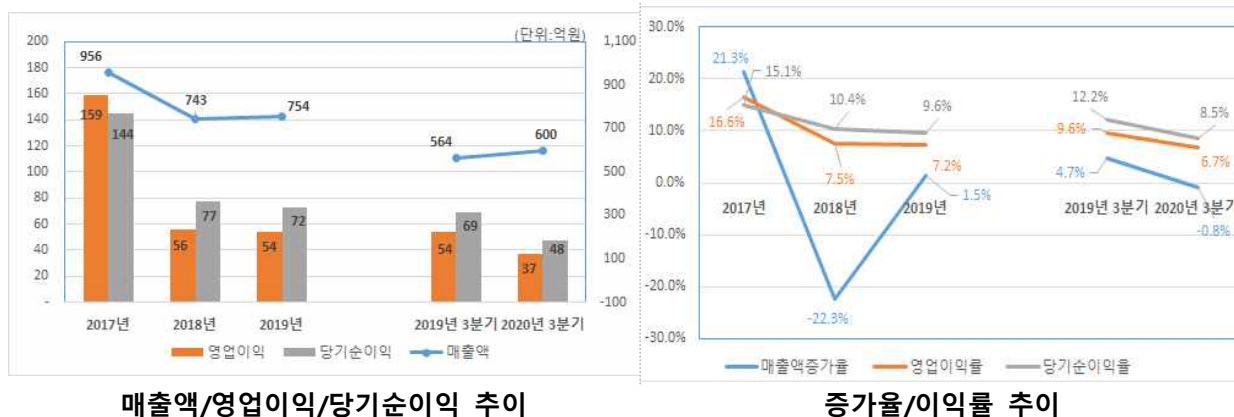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용 진공박막코팅 제조업체

동사는 2000년 디스플레이용 진공박막코팅 제품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구미공장을 준공하여 Glass Slimming 및 ITO 코팅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오창 공장 인수를 통해 광학필름코팅 사업에 진출하였다. 매출 대부분은 LG디스플레이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바, 디스플레이 업종의 부진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 매출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슬리밍 및 진공박막코팅 선도업체

동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슬리밍 및 진공박막코팅 선도업체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슬리밍 및 진공박막코팅 매출비중이 98.1%를 보이고 있다. 업계 내 우수한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매출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18년만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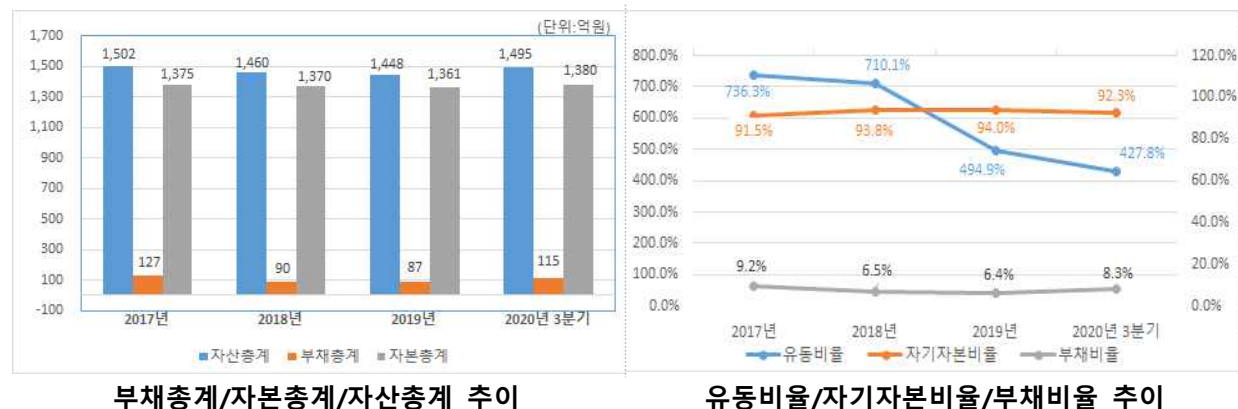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그림 13.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18년만 개별)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 2019년 매출 정체 추세이나 양호한 수익성 유지

동사의 매출액은 2017년 956억 원(-21.3% YoY), 2018년 743억 원(-22.3% YoY), 2019년 754억 원(+1.5% YoY)으로 최근 매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주요 매출처인 LG디스플레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2017년 전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으로 매출이 급증했던 반면, 2018년 주력인 LG디스플레이 투자가 축소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부진으로 매출 정체를 나타내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주요 원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원가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연구개발비 증가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2019년 결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7.2%, 매출액순이익률 9.2%를 보이며 업계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 ■ 2020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매출 소폭 감소 및 수익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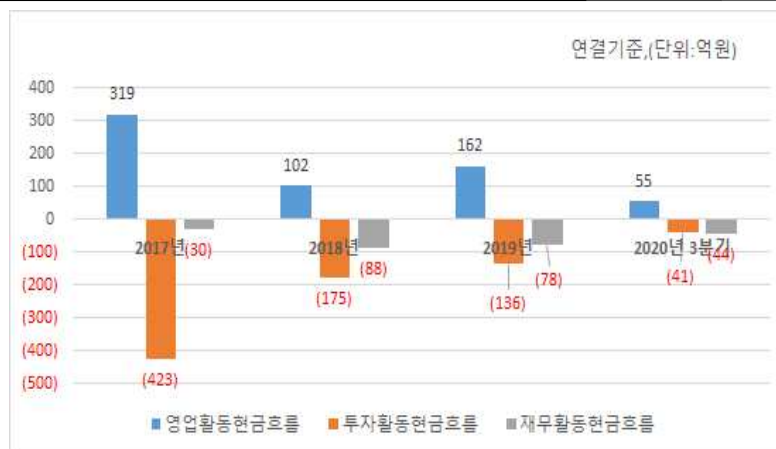
2020년 3분기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전방 디스플레이 시장의 투자 재개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8%의 비교적 소폭 감소한 60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가동률 하락에 따른 원가부담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6.7%, 매출액순이익률 8.5%로 여전히 양호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0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8.3%, 자기자본비율 92.3%, 유동비율 427.8%, 차입금의존도 0.0%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 ■ 양호한 현금흐름 유지

2020년 3분기 기준 양호한 수익창출력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양호하다. 영업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유형자산 취득 등의 시설투자 자금 유출을 충당하고, 자기주식 취득, 배당금 지급 등의 재무활동 자금 부담도 높지 않은바, 전반적인 자금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18년만 개별)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MLCC 양산라인 구축 및 외형 성장 기대

동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MLCC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양산능력 갖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 MLCC 신사업 선정

동사는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선정하고, 2019년 월 30억 개 규모의 양산 설비(구미 MLCC 공장)를 구축하기 위해 450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제품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며, 총 누적 생산규모를 월 30억 개에서 월 200억 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MLCC는 전기자동차 및 5G 분야에서 소형 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동사는 대규모 첨단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외형을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최근 동사는 자동차 품질관리경영시스템(IATF16949)을 인증받았으며, 개발한 MLCC 제품에 대해 전장부품 인증(AEC-Q200)을 획득하는 등 순조롭게 양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5. MLCC 사업 진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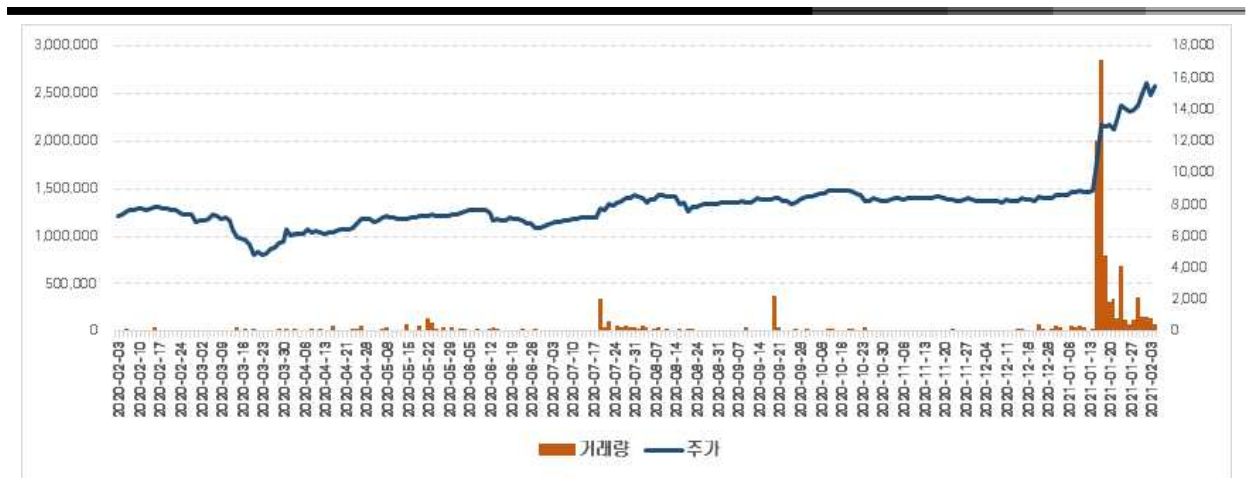
\*출처: 동사 MLCC사업소개서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2.)